

제주도에 들어온 일본종교와 재일교포의 역할

조성윤*

〈차례〉

- I. 머리말
- II. 교포활동현황
- III. 제주지역 포교에서의 재일교포의 역할
- IV. 맺는말

I. 머리말

이 글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본에서 발생한 종교가 한국에 들어와 포교활동을 전개하는 과정과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는 작업의 일부로, 제주 지역의 사례를 통해 일본종교의 한국 포교에 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글은 중간보고의 성격을 띤다.

한국에서는 아직 한국에서 일본 종교의 포교가 진행된 과정에 관한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바 없다. 물론 약간의 조사보고서가 있지만 주로 교단 본부에 대한 서면 질의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시기도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기 때문에¹⁾ 현재의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직접 교단을 방문하고, 관련 활동을 조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1차 조사는 2004년 1월부터 시작되어 4월말까지 실시하였으며, 2005년도에 2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1차 조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장, 사회학과 교수

1) 일본종교에 관해서는, 이강오, 『韓國新興宗教總攬』, 韓國新興宗教研究所 編, 1992. 유병덕·김홍철·양은용, 『韓中日 三國 新宗教實態의 比較研究』, 圓光大宗教問題研究所, 1992. 圓光大宗教問題研究所 編, 『韓國新宗教實態調查報告書』, 1997 등이 있다.

실시한 [한일 종교의 상호수용 실태에 관한 조사]의 일환으로 주로 서울, 경상도,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는 현지 교단 방문과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과 주요 의례가 치러지는 현장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1차 조사에서 제주도에 들어온 일본계종교 중에 창가학회(創伽學會), 천리교(天理敎), 영우회(靈友會)를 조사할 수 있었는데, 가장 눈에 띄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재일교포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었다. 말하자면 일본의 교단 본부가 적극적인 해외포교정책을 수립하고 조직적으로 포교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포교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생활하던 재일교포들이 각 교단에 신자가 되었고, 자신들이 믿는 바를 제주도민들에게 전파하려는 열망이 크게 작용하면서 포교가 이루어진 것이다.

전국적인 수준에서 보면, 한국에서는 일본 종교라고 하면 반일감정과 맞물려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며, 흔히 왜색종교(倭色宗教)라고 부르기도 한다. 더 나아가 천황을 찬양하고 일본 군국주의 노선을 그대로 추종하는 집단 정도로 치부되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자들은 자신이 일본 종교의 신자임을 자신 있게 다른 사람에게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교단 차원에서도 한국 언론을 통해 알리는 활동을 하지 못했다.²⁾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타지방과는 달리 일본종교가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비교적 순조롭게 전파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전체 인구의 1%를 차지하는 제주도에 6개 교단이 들어와 있는 것은 일본 종교의 제주 포교가 활발함으로 말해준다. 특히 주목할 것은 세계구세교를 제외한 모든 교단이 서울이나 부산 지역으로부터 전파된 것이 아니라, 재일교포에 의해 일본에서 직접 들어왔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에 제주도 출신 재일교포가 많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들이 일본에 거주하면서 민게 된 종교를 친족에게 전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신이 제주도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포교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영우회와 진여원은 서울 다음으로 제주도에 포교소를 갖고 있는 이유가 이를 통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일본종교를 갖고 들어와 전파하던 재일 제주인들의 적극적인 포교와 함께 제주도민들에게 비친 그들의 이미지가 상당히 긍정적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이 점을 집중적으로 살펴 보려고 한다.

2) 趙誠倫, 「日本における新宗教のアジア布教と民族問題」, 『訪日學術研究者論文集-アカデミック』 第8卷, 日韓文化交流基金 2001.

II. 포교 활동 현황

먼저 제주지역의 일본계 종교 포교 실태를 간략히 서술한다. <표 1>에서 보듯이 한국에 들어와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 종교 중에서 현재 조사된 것이 13개 교단인데, 이 중에서 천리교, 일련정종(日蓮正宗), 창가학회, 영우회, 세계구세교(世界救世教), 진여원(眞如苑)의 6개 교단이 들어와 활동 중이다. 한국에 들어와 포교하는 일본계종교 중에서도 비교적 교세가 크고 신자가 많은 교단이 주로 제주에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에 가장 먼저 들어온 일본계 종교는 천리교인데, 1945년부터 포교가 시작되었고, 일련정종과 창가학회는 1960년대초, 영우회는 1960년대 말부터 포교가 시작되었다. 반면 세계구세교와 진여원은 1990년대초부터 포교를 시작하였는데, 아직 초기단계에 해당된다. 이 중에서 천리교, 일련정종과 창가학회, 그리고 영우회를 주로 정리한다.

천리교의 한국포교는 한말부터 시작되었는데, 일제침략기 내내 일본계 종교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포교가 이루어졌고, 주로 서울과 경상도 지역에 포교가 집중되었다.³⁾ 1945년 해방이 되면서 天理教의 일본인 간부들이 모두 철수했기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에는 소수의 한국인 신자들이 남아서 신앙을 유지할 뿐, 신자가 크게 줄어들었다.

제주의 천리교는 니시야마 시게루(西山茂)가 1997년 11월 제주학회 연차대회에서 현지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요약문만 배포된 상태에서 발표가 진행되었지만, 제주도에 천리교가 전파되어온 과정을 인터뷰를 통해 정리하고, 이를 종교전파론의 시각에서 분석하였지만, 완성된 논문은 간행되지 않았다.⁴⁾

3) 李元範, 「日本の近代化と民衆宗教-近代天理教運動の社會史的考察」, 東京大學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5.

4) 西山茂, 「濟州道における日系新宗教の受容と變容-天理教と創價學會の事例を中心に」, 제13차 전국학술발표대회, 제주학회, 1997. 11.14.

〈표 1〉 제주지역의 일본계 종교 신자수⁵⁾

구 분	교 단 명	한국전체	제주지역
제주도에 있는 교단	天理教,	300,000名	300名
	日蓮正宗,	200,000名	200名
	創価学会,	1,485,013名	10,000名
	世界救世教,	5,530名	200名
	靈友會,	3,500名	200名
	真如苑,	800名	50名
제주도에 없는 교단	金光教	100名	
	立正佼成會	600世帯	
	本門仏立宗	300名	
	生長の家	350名	
	善隣會	70名	
	辯天宗	750名	
	예수御靈教會		

제주도에는 1945년 이전 천리교가 전파된 기록을 찾을 수 없다. 1945년 해방이 되면서 포교가 시작되었는데, 이미 포교가 진행된 육지 다른 지방에서 포교사가 건너온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천리교 신자로 활동하던 재일교포가 귀국하면서 시작되었다. 오사카(大阪) 지역에서 활동하던 고경천(高景天)과 그의 아들 양정남(梁正男)이 중심이 되어 세운 대선교회(大鮮教會)와 현병생(玄丙生)이 세운 제주교회(濟州教會)가 중심이었는데, 두 교회는 모두 서울과 경상도 지방에 들어온 교회들과는 계통이 다른 니시노미야(西宮)대교회 산하에 있는 세쓰다이(攝大) 분교회 신자들이었다.

고경천의 남편인 양창일(梁昌一)이 언제 일본으로 건너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아들 6형제를 잃고 나서 1931년경 천리교를 믿게 된다. 그는 오사카에서 세쓰다이(攝大) 분교회 신자가 되어 활동하였고, 대선포교소(大鮮布教所)를 설립해서 포교를 하는 한편, 자신이 일본에서 모든 많은 재산을 교회에 헌납함으로써 사망 후에 그의 시신이 본부 묘지에 묻힐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⁶⁾

대선교회 양영호교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5) 이 통계는 본인이 참여한 「한일 종교의 상호수용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로 보고집은 아직 간행되지 않았다.

6) 「특집 교회탐방: 제주도 탐방을 마치고」, 월간 『天理』 1977년 12월호, 23-24쪽.

제주도에 들어온 일본종교와 재일교포의 역할

1970년대에는 여기(대선교회)가 유학자로 꼭 차서 글쓰고 글짓고 철학하고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천리교와 유교의 차이가 뭐냐 한 마디로 정리해봐라는 등의 문답을 주고 받고 그랬는데, 그 때 유교는 현상을 짚고 천리교는 해답을 준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생들의 자세는 다 카톨릭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 이후 신앙인은 기복신앙형태로 남게 되었지요.

5교회 19포교소에 이르던 것이 현재는 대선 제주 제남(효돈, 제주에서 갈려) 삼양 광덕(해안동입구 무수천주유소뒤. 함덕에서이동. 함덕자리에는 광성포교소) 다섯교회를 포함해서 9군데만 남았습니다. 노년이 50%정도이고, 장년이 35%, 나머지가 청년입니다.⁷⁾

양영호의 증언에 따르면 초기 신자들 중에서는 유생 출신 등 지식인 많았으며, 1960-70년대에 포교가 가장 활발했었다. 위의 두 교회에 23개의 포교소가 제주 전역에 깔려 있었고, 신자가 2천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포교의 핵심은 병 고침에 있었다. 천리교의 가르침을 따라 주문을 외우고 절을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문에 신자들이 계속 밀려들었다. 천리교가 한국사회에서 1960,70년대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은 일보 교단이 직접 개입해서 교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가 아니라, 병고침을 가능하게 하는 수련과 포교자들의 열정적인 포교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병 고침은 천리교가 뻗어나가는 가장 큰 특징이었으며, 해방 이후 최재한이 불러일으킨 포교의 바람도 같은 맥락이다.⁸⁾ 다음은 제주 지역에서 만난 노인 신자의 증언이다.

신자들은 선생이 없으면 싹 없어지고, 이 교회라는 거 어른 밑당 뭐시가 어시면은 떨어졌다 들어왔다 그렇습니다. 천리교는 신상이라. 아파서 해결이 병원에 가도 안 되도, 약 해도 굶해도 안 되고 하는 사람이라야 천리교를 찾아오는 거라. 오면은 법을 일러 주고, 열심히 다녀보라고 하면 다 건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바람에 신자가 된 것이지. 열심히 다니면 건강해지고, 그 사람들이 아픈 사람 또 데려오고, 그러면서 신자들이 많아졌어요. ... 그 사람들이 그냥 온 사람들이 아니고, 눈 아파 온 사람, 귀 아파 온 사람, 입 아파 온 사람, 머리 아파 온 사람, 다리 아파 온 사람, 다 아파서 오지 그냥 안 옵니다. 그러니 손으로 만지면 좋고, 또 손으로 누르면 좋고, 좋으니까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그런 거지요. 여기 오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 다 가난한 사람들 쌀 한 사발이 최고라. 한 되도 없어 사발로 하나 가져와 병 낫고, 고치고 ...⁹⁾

7) 대한천리교 대선교회 교회장과의 인터뷰. 2004년 2월 23일.

8) 정명수, 『대한천리교사②』, 미래문화사, 2001.

9) 김백문(84세)과의 인터뷰. 2004년 3월 3일, 대선교회.

라는 말은 당시의 정황을 잘 이야기 해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정은 영우회나 일련정종 창가학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가장 널리 보급된 일련정종 창가학회의 교리는 병들고 가난하고 가장 불화가 잦은 사람들이 열심히 「나무묘호렌계교(南無妙法蓮華經)」를 반복하고, 아침저녁으로 근행(勤行)을 계속하면 부처님의 공덕을 받아 행복해 진다는 비교적 간단한 것이었다. 이러한 구제재는 최근 세계구세교에서 행하는 정령(精靈) 치료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신자가 줄어들었는데, 여기에는 한국의 천리교단이 대한천리교와 한국천리교로 분열되고, 상호 대립한 것과 일본의 천리교단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하지 못했던 것이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대선교회와 제주교회만이 명맥을 유지하는 실정이다.

다음 창가학회와 일련정종을 살펴보자. 2004년 현재 제주도에서 신도수가 가장 많고 활발한 포교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계 종교 교단은 창가학회이다. 한국에서는 흔히 '남묘호랭계교'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창가학회는 일본 내에서 가장 많은 신도를 갖고 있으며(교단 발표로는 830만 가구의 약 1,700만명이다), 현재 자민당과 함께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公明黨)이 바로 창가학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창가학회의 한국포교는 1962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 창가학회가 일련정종의 신도단체의 하나였기 때문에 흔히 '일련정종창가학회'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기도 했다.¹⁰⁾

재일교포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전해진 창가학회는 1961년 서울에서 좌담회(座談會)¹¹⁾를 가진 것이 출발이었다. 당시 가장 널리 보급된 교리는 병들고 가난하고 가장 불화가 잦은 사람들이 열심히 「나무묘호렌계교(南無妙法蓮華經)」를 반복하고, 근행(勤行)을 계속하면 부처님의 공덕(功德)을 받아 행복해 진다는 비교적 간단한 것이었다. 그 뒤 서울과 대구를 중심으로 급속히 신도를 늘려가기 시작하여 불과 2년 만에 1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창가학회는 한국에 포교 초기부터 반일감정이라는 커다란 벽에 부딪혔다. 언론에서는 주로 3·1절과 광복절 때만 되면 일본의 한국 침투의 대표적인 사례로 왜색종교를 거론하여 특집으로 다루곤 하였다. 1960년대초 문교부가 위촉한 인사들로

10) 創価学会는 日蓮正宗과의 처율이 심화되면서 1990년 結局 갈라서게 된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Bryan Wilson(1990), Time to Chant의 Introduction 부분을 볼 것. 그는 이 분열을 서양에서의 카톨릭과 改新教의 분열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11) 좌담회는 창가학회의 독특한 집회로 가장 기초 단위인 블록을 중심으로 한달에 한번씩 열리는 신자들의 집회이다.

구성된 한국종교심의회는 창가학회를 반국가적 반민족적 단체라고 규정하였고, 오랫동안 여러 가지 사회적 비난과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법적으로 금지 당한 것은 아니지만 지하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다.¹²⁾

제주에서도 1960년대초 서울 대구 지역과 마찬가지로 재일교포들이 개별적으로 포교를 시작하여 가정집에서 소규모로 모임을 갖다가, 1975년부터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일련정종 한국불교회 제주지부(日蓮正宗 韓国仏教会 濟州支部)」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당시 상황을 현 제주지역책임자인 김승범 방면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처음에는 주로 재일교포들이 시작했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간 재일교포 불도들이 그때 일찍 불법을 받았습니다. ... 모슬포 쪽이 제일 빨랐어요. 그 다음에 산지 아니면 광령이고, 서귀포는 서귀포대로, 하효는 하효대로. 산발적으로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산발적으로 본존(本尊)님을 모시고, 신앙을 배우고 책을 보면서 했다가 일본글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하다가 75년도에야 여름에 저희들이 제대로 결성했습니다. 광양구 시외버스 터미널 조그만 한 건물을 방 하나 빌려서...

초기의 포교가 재일교포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도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신자가 늘어나면서 1975년에 비로소 제주 지부가 결성되었다는 것이다.

그 뒤 꾸준히 포교가 이루어졌는데, 일본에서 1990년 분규가 발생하면서 창가학회가 일련정종으로부터 분리되었다. 때문에 국내에서도 두 집단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는데, 대부분의 신자가 창가학회에 남고, 일부 신자가 일련정종 조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창가학회와 일련정종의 분규 때문에 발생한 분리는 신도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안겨주었을 것이며,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결코 간단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경우 신자들이 창가학회에 남고 일련정종에는 수가 적었다는 것은 그동안의 일련정종의 포교가 창가학회라는 신도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뿐, 다른 신도 조직과는 거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분리 직후부터 1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호 비방과 대립이 이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창가학회 신자들이 일련정종에 속한 신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창가학회 쪽으로 끌어 들이는 활동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일련정종은 점차 신자가 줄어들어 200명 이하가 되었으며, 2003년까지 시내에 유지하던 사무실도 최근 폐쇄되고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12) 朴承吉(1994), 「創備學會의 國內 成長과 그 意義」, 『宗教研究』 第10輯, 韓國宗敎學會.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창가학회는 「SGI한국불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전국을 지역별로 방면(方面)이라는 단위를 기준으로 나누고 있는데, 제주 방면도 그 중 하나이다. 제주 방면은 다시 제주권(濟州圈)과 서귀포권(西歸浦圈)으로 나누고, 각각 문화회관(文化會館)이라는 이름의 집회 장소를 갖고 있다. 권마다 3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모두 6개 지역이 있고, 그 밑에 지부(支部)-지구(地區)-블럭으로 편성하여 지역을 단위로 한 조직을 형성하였다. 각 블럭마다 좌담회를 월1회 개최하는데 평균 3천명 정도 참석하며, 6개 지역 간부모임에는 블럭 책임자 이상의 간부들이 평균 100명씩 참석하여 모두 600명이 참석하고 있다고 한다.

1980년대 이후 창가학회는 사회변화에 맞추어 교리를 빠르게 보강해 나갔다. 창가학회는 SGI를 출범시키면서 세계 포교 활동을 강화하였는데, 이 때 개인 구원이 강조되던 상태로부터 벗어나 평화, 교육, 인권등을 내세우면서 사회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훨씬 강력해졌다. 과거에는 강력한 포교방식인 절복을 강조했지만 지금은 완화되어 내부의 교리를 바꿔서 부드럽게 하였다. 카톨릭이나 다른 종교들과도 교류를 시도하면서 다종교 사회에서 공존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볼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은 줄어들었지만 타겟이 하층민을 집중적으로 하여 교세를 넓혀나가는 것은 줄어들고 거꾸로 지식인을 목적으로 교세를 넓혀나가는 종단으로 바뀌고 있다. 이 점이 조직이 갖고 있던 강점을 약화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젊은 층과 지식인들에게 크게 어필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¹³⁾

한편 1998년부터 제주대학교가 창가대학과 교류협정을 맺고 상호교류를 시작하였다. 창가대학측에서 제주대학을 방문하여 예술전람회를 개최하고, 제주대학교는 창가대학 설립자인 이케다 다이사쿠(池田大作) SGI 회장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방학 때마다 창가대학생들의 한국 연수, 제주대학생들의 일본 연수가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제주지역에서의 창가학회의 이미지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시 신자가 증가하고 있다. 제주지역 전체 등록 회원은 1만명을 넘어섰으며, 평소 집회에 3천명 정도가 참석하고 있다고 한다.

영우회 역시 일본에 거주하던 제주 출신 재일교포가 제주도로 돌아와 친척들을 중심으로 포교를 시작하면서 형성되었다. 되어 점차 규모를 늘려 나갔다. 면담했던 제주지역 영우회 간부는 초기 포교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3) 조성운, 「한국에서의 천리교 포교와 조직」, 한일 종교연구 국제학술심포지움(천리교편) 발표 원고, 2004.

자연발생적이라고 할까요. 일본에 사시는 재일교포가 자연스럽게 영우회 활동을 하다가 귀국하게 됩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자료에 의하면 문상로씨가 53년에 최초로 신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후에 고향인 제주도에 돌아오면서 일가 친척들을 중심으로 인도하게 되고, 그 후로 구루야마 지부장이라고 부르던 현명순씨도 들어오면서 가까운 분들을 인도하고 그랬던 것이 점차 규모도 갖게 되고 그런 것이 제주 영우회의 시초라고 볼 수 있죠. 일본에서 누가 와 가지고 본격적으로 포교를 한다든지 조직적으로 한국에 뿌리를 내리려고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위의 설명에서 보듯이 1953년에 일본에서 신자가 되었던 문상로가 언제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고향으로 돌아왔고, 이어 1960년대말에 현명순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일가친척을 중심으로 포교가 진행되었다.

1975년경 국내 신자들 중심으로 제주 법좌(法座), 부산 법좌, 두개의 법좌가 생겼는데¹⁴⁾, 특히 제주 지역의 활동이 활발해져서 1983년 제주법좌가 한국연락사무소로 승격되었다. 한국 포교의 중심이 제주가 된 것이다.

영우회는 인연(因緣)에 의해 신자 조직을 확대하는데, 1980년대에는 제주가 중심이 되어 서울과 광주 지역으로 포교가 확대되었다. 제주의 신자들이 서울과 광주로 가서 포교를 한 결과 그 지역 신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이다. 때문에 한 때 서울과 광주 지부 신자들이 제주를 찾아와 합동 집회를 갖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대 오면 다시 약화되어 광주 지부는 거의 폐쇄되었고, 서울 지역도 상당히 신자가 줄어든 상황이다. 현재 제주지역의 신자는 200명 수준이며, 꾸준히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100명 정도로 대부분 50대 이상이라고 한다. 부산지역은 제주에 비하면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져 500명 이상의 신자가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3,000명 이상의 회원이 있다고 한다.

이상 간단히 서술했듯이, 일련정종 창가학회와 천리교, 그리고 영우회는 해방 직후부터 1970년대 사이에 재일교포에 의해서 포교가 이루어졌고, 창가학회와 천리교는 전국 다른 지방과는 달리 독자적인 포교 체계를 구축하였고, 영우회는 줄곧 제주가 전국 포교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세계구세교는 1990년대초부터 제주지부가 활동을 시작하였고, 진여원 역시 1990년대초부터 서울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재일교포에 의해서 포교되고 사찰이 생겼다. 하지만 두 종교 모두 학력이 낮은 60대 포교자에 의해서 운영되면서 포

14) 법좌는 50명 단위로 구성되는 영우회의 하부조직이다.

교 활동이 별로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이 중에서 세계구세교는 다른 울산, 포항, 마산 등의 포교가 활발해지면서 경상도 지역 지부에서 제주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시로 포교사를 파견하고 있다. 신자수는 대체로 100명 이하이며, 60대 이상 노인들이 중심이지만, 2세 청년층이 최근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반면 진여원은 거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Ⅲ. 제주지역 포교에서의 재일교포의 역할

일본종교의 한국 포교는 한국 사회 전 지역에서 골고루 전개되기보다는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집중적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있다.¹⁵⁾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한 경상도 지방과 서울, 그리고 제주지역이 주된 포교 지역인데, 왜 특정 지역으로 포교가 집중되며, 어떤 포교 방식을 보이는지를 주로 살펴 볼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주지역에서의 일본 종교의 포교는 대도시인 서울부산지역으로부터 지방인 제주로 전파되는 방식이 아니라, 주로 일본에서 거주하다가 돌아온 제주출신 재일교포에 의해 독자적으로 진행되었다. 참가학회와 천리교는 육지 다른 지방의 네트워크와 밀접하게 연결되지 않은 채, 일본에서 이미 신자가 되었던 재일교포들이 제주에 돌아와 살게 되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방문하게 되면서 서서히, 그리고 산발적으로 포교가 진행되었고, 그러다가 독자적인 포교 체계를 갖추었고, 영우회처럼 제주지역 신자수가 서울이나 부산보다 오히려 비중이 더 큰 경우도 나타났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를 위해서는 제주 지역 출신 재일교포의 비중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1988년 12월말 현재 재일조선-한국인 677천여명 가운데 제주도 출신자는 117천여명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 현재 한국 인구 4,352만명 중에 제주도민은 51만여명으로 인구비로는 1.2%이므로, 재일교포 중에서 제주도 출신자의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물론 2003년도 통계에 의하면, 재일한국인이 614천명으로 줄어 들고 있는 추세이므로, 제주도 출신 교포의 수도 조금은 줄어들겠지만, 비중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¹⁶⁾

15) 박승길·조성운, 「韓國社會에서의 他者로서의 日本宗教와 他者멘탈리티의 변화, 『社會와 歷史, 第67輯, 韓國社會史學會.

16) 姜在彦, 「재일 한국인의 과거와 현재」, 학술세미나 재일 제주인의 삶과 제주도 발표문집, 제주, 2003. 3. 4.-5. 11쪽.

또한 제주출신 재일교포가 다른 지방 출신들 보다 고향에 대한 귀속감이 높아 자신이 제주도 출신임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데¹⁷⁾, 이들이 수시로 고향마을을 방문하고,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매우 강한 편이다.

또 다른 요인은 해방이후 한국사회, 특히 제주사회에서 재일교포가 차지하는 사회적 지위이다. 1960,70년대 한국사회의 경제 수준은 상당히 낮은 상태에 머문 반면, 일본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고도 성장기 일본은 한국인에게는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는 공존이 불가능한 타자였지만, 현실적으로는 변화의 모델로서의 타자이기도 했다. 따라서 당시만 해도 재일 한국인은 변화를 바라는 한국인에게는 중요한 성공의 준거점이 되고 있었다. 1974년의 이른바 문세광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재일 교포 정책을 바꾸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정부의 재일 교포 모국방문 활성화 조치가 시행되었다. 1975년 9월 13일에는 지금까지 접촉조차 국가보안법 위반 대상이었던 조총련(朝總聯) 계통의 재일 교포 700여명이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고, 고향의 추석성묘를 국내 친척들과 함께 하게 된다.

이들 재일 교포의 입국 러시는 일본에서 신종교 붐을 타고 신자가 되었던 재일 교포들의 신앙도 함께 따라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당시 일반적인 한국인들의 눈에는 고향의 친인척을 찾는 재일 교포가 부유한 나라 일본에서 성공하여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로 비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의 친인척들은 그들처럼 성공하여 행복해지기를 바랐으며, 교포들이 전해주는 성공과 행복의 비결에 솔깃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재일 교포가 전해주는 일본신종교의 교리는 그들처럼 성공하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던 친인척들의 관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였다. 세계구세교(첫 포교는 1966년), 입정교성회(立正佼成會), 영우회(靈友會), 선린회(善隣會:1971년 敎祖의 한국 修行場 방문이 계기가 된다), 생장의 가(生長의 家) 등은 재일 교포를 매개로 한 다양한 일본 신종교의 유입이라는 시대적 특징을 잘 반영한다. 이런 유입 현상은 1980년대까지 이어진다.¹⁸⁾

제주도에서의 재일교포의 이미지는 “부유한 나라에서 온 손님”의 이미지가 강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잠시 또는 영구 귀국한 재일교포는 물론 일본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교포들까지도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실제로 당시 마을에 학교를 세우거나, 마을회관을 지을 때에는 재일 제주도 출신자들의 원조가 의례 가장 중요한 재원이 되었다. 한편 재일 제주도 출신 경제인 단체와 재일 동포들이

17) 이문웅, 「재일 제주인의 의례생활과 사회조직」, 『濟州島研究』 第5輯, 1988.

18) 박승길조성운, 「韓國社會에서의 他者로서의 日本宗教와 他者멘탈리티의 변화」, 『社會와 歷史』 第67輯, 韓國社會史學會.

감귤 묘목 기증운동을 전개해 자신들의 고향 마을에 묘목을 보내왔는데 1969년부터 1973년 사이에 1000만 그루 이상이 들어왔다.¹⁹⁾ 당시 재일교포는 힘과 권력의 상징이었으며, 심리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위치에 있던 재일교포가 갖고 들어와 포교하는 종교가 제주인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일본 종교가 갖고 있는 포교 방식의 특성도 제주 지역 포교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주목할 것은 교세가 확대되면서 성장하던 일본종교들 중에서 천리교, 영우회, 일련정종은 1980년대 이후 다시 교세가 약화되다가 1990년대에는 크게 약해진 반면, 창가학회만은 오히려 전국적으로 단단한 조직 체계를 갖추면서 급속히 성장하여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어쩌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는 포교 조직 방식의 차이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해방 직후부터 1970년대까지 제주도에 포교가 이루어진 대부분의 일본 종교들은 포교 방식이 다테센(立線)이라고 부르는 수직적 피라미드 연결 구조를 갖고 있었다. 애초에 포교가 이루어질 때부터 인연(因緣)을 따라가면서 조직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천리교와 영우회가 종적 포교 조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반면, 창가학회는 처음에는 종적 조직이 중심이었다가, 1970년 이후에는 지역 중심의 횡적 조직으로 바뀌었음을 지적하고 싶다.

인간관계 중심의 종적 조직은 강력한 인간간의 유대를 바탕으로 한다. 어떤 한 신자가 사람들에게 포교를 하면, 자신이 포교한 사람들을 모두 자신의 밑에 연결선을 두고 관리하며, 자신이 책임지는 방식이다. 따라서 조직의 결합 정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리적으로 멀리 흩어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도 많다. 반면 지역조직은 각 지역 단위로 편성되기 때문에 동일한 지역에 거주한 주민들끼리 모이기도 쉽고 짜임새 있는 활동을 전개하기에 편리하다. 물론 잘못하면 인간 관계가 약화되고 형식적으로 그칠 가능성도 높다.

창가학회는 종적조직 방식이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혔을 때, 횡적 조직 방식을 채택해 종적 조직 방식과 결합하여 재조직함으로써 한계를 돌파했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비하면 천리교는 매우 느긋한 것 같다. 천리교에서는 인맥에 의한 사람들 사이의 가까운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이 교단 내부에 여전히 많고, 이렇게 종적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교단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현실을 좀더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²⁰⁾

19) 진관훈, 「재일 제주인들의 '고향' 제주에의 기증에 관한 연구」, 학술세미나 재일 제주인의 삶과 제주도 발표문집, 제주, 2003. 3. 4.-5.

20) 조성운, 「한국에서의 천리교 포교와 조직」, 한일 종교연구 국제학술심포지움I (천리교편) 발표원고, 2004.

제주도에서 1980년대까지는 재일교포의 영향력이 강했고, 따라서 인연에 의한 포교가 힘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1990년대가 되면 한국사회의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재일교포의 영향력이 줄어든다. 또한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사회이동이 심하고, 신자들이 공간적으로 넓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천리교와 영우회처럼 전통적인 종적 조직을 고집하는 것보다 횡적 조직(橫線) 형태로 변화시킨 창가학회가 오히려 포교 조직을 효과적으로 구성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한다.

오늘날의 창가학회의 조직 형태는 지역 중심의 횡적 조직이다. 신도가 되면 하나의 블록 구성원이 되면서 동시에 연령별 조직과 문화본부조직에 각각 소속한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창가학회는 일본이 급속히 산업화하는 과정에 적합한 포교 조직 방식을 확산시켰다. 반면 천리교와 영우회 등은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함으로써 산업 사회에 사회이동이 심하고, 신자들이 공간적으로 넓게 확산되는데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고려할 것은 교리에 관한 것이다. 일본계 종교가 제주사회에서 1960,70년대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은 체계적 조직 관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로 포교자의 열성과 병고침을 가능하게 하는 수련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가장 널리 보급된 일련정종 창가학회의 교리는 병들고 가난하고 가장 불화가 잦은 사람들이 열심히 「나무묘호렌계교(南無妙法蓮華經)」라는 주문을 외우고, 아침저녁으로 근행(勤行)을 계속하면 부처님의 공덕을 받아 행복해 진다는 비교적 간단한 것이었다. 이러한 구원의 길은 천리교는 물론, 세계구세교에서 하는 정령(精靈) 치료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하지만 창가학회는 SGI(國際創価学会)를 출범시키면서 세계 포교 활동을 강화하였는데, 이 때 개인 구원이 강조되던 상태로부터 벗어나 평화, 교육, 인권 등을 내세우면서 사회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훨씬 강력해졌다. 과거에는 강력한 포교방식인 절복(折伏)을 강조했지만 지금은 완화되어 내부의 교리를 바꿔서 부드럽게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층민을 대상으로 교세를 넓혀 나가는 것은 줄어들고 거꾸로 지식인을 중심으로 교세를 넓혀나가는 종단으로 바뀌고 있다. 이 점이 조직이 갖고 있던 강점을 약화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젊은 층과 지식인들에게 크게 어필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청년층 신자들의 증가는 그런 이유 때문이다.

반면 천리교와 세계구세교 등은 여전히 병고침의 교리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이제 더 이상 대중들에게 어필하는 구원의 길이 되지 못하고 있다.

IV. 맺는말

한국 전체 인구의 1%를 차지하는 제주도에 6개 교단이 들어와 있는 것은 일본 종교의 제주 포교가 활발함으로 말해준다. 특히 주목할 것은 초기 포교 과정에서 세계 구세교를 제외한 모든 교단이 서울이나 부산 지역으로부터 전파된 것이 아니라, 재일교포에 의해 일본에서 직접 들어왔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에 제주도 출신 재일교포가 많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들이 일본에 거주하면서 믿게 된 종교를 친족에게 전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신이 제주도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포교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영우회와 진여원은 서울 다음으로 제주도에 포교소를 갖고 있는 이유가 이를 통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포교 초기 단계에서 재일 제주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제주 지역에 일본계 종교들이 많이 퍼질 수 있었으며, 여기에는 재일 제주인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 즉 잘사는 나라에서 선물을 들고 찾아온 친척들에 대한 선망은 그들이 들고 온 종교에 대해서도 제주도민들이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만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제주 지역에서의 이들 일본계 종교의 세력은 대체로 약화되고 있으며, 창가학회처럼 신자가 증가하는 경우도 더 이상 재일교포들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이것은 제주도 내에서의 재일교포들의 사회적 위상이 하락하고 있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재일교포들이 갖고 있던 사회적 지위는 한국사회와 일본사회의 경제력의 차이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한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1980년대부터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이후에는 더 이상 재일교포에게 물질적 기대를 크게 갖지는 않게 되었고, 이것이 재일교포에 대한 특별한 이미지를 약화시키는 작용을 했다.